

## 사이버교육과 기독교 교사의 신앙수준

칼빈 대 대학원 강사 김 학영

### I.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의 시작이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살아계신 분으로부터의 시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미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탄생을 창조하심으로 나에게 살아계시고 존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인생은 끊임없는 혼돈과 공허만 있다.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다시 탄생하는 순간에 창세기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 와 있고, 나도 그곳 거기에 가 있게 된다.

새로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지식사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식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 수많은 지식들이 산출되고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히 왕래하며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지식 폭팔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다. 인간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류하는 전통적인 생활공간과 양식을 유지하는 현실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사용공간이 더욱 확장 될 것이며 그 이용분야도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여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7)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잠2:3)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는 저희로 하여금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골2:2-3) (이건창, 2003)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늘에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으시어 하나님의 성품인 무소부재 하시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활동하시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케 한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만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오늘날 신학대학과 교회는 물론 기독교란 이름으로 훈련 되어 지는 많은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본주의적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다. 예수님도 자기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만 했음에도 대부분의 교육이 성경의 표현들과 인본주의적 심리학을 씌워놓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다. 이는 성경을 기초로 한 중요한 원리나 가르침 보다는 사소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알고 말하면 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계시 들을 적용하며 성경적 계시 보다는 많은 인본주의적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다.(존 맥아더, 디모데) 기독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하며 순종하는 일이 요구 된다. 이렇게 훈련된 교사들은 사이버

를 통한 수단을 활용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희11:1-2) 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현대 문명의 산물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2:28-29)의 말씀에 따라 예수를 전파 하는 일과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교사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21세기 의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한다.

## 2.본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우주, 존재 전체이다.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창조 세계, 그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 “만물이 그 안에 쫘느니라” (골 1:17). 그러나 이는 인간이 이성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11:3)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은 어떤 사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물 들은 그분을 나타내는 형태들이다. 창조주가 인격이시고 그 인격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역시 인격이다. 이것은 같은 형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은 것이면서 그러나 그 인격은 판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에게 자의식,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갈망함이 있다는 것이며 자아는 자신을 기쁘게 하며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며 자신은 남을 위해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자기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모든 활동의 동기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내어 주시는 사랑의 삶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계시면서 완전히 서로를 섬기는 존재이시다. 이렇게 그 인격이 서로 판판 일 수가 있다.

우리는 한 분 인격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며 그분이 드러나시는 옷과 같은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격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을 사이버 공간에 나타내지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 2-1.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우리들의 "이해" 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며 어떻게 주시는가를 알아내려 할 때 우리의 이해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계시다.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훌륭히 다져주는 기회가 된다.(멜린R.케로더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37:4)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원 하는 바를 미리 짜 놓고 그것을 구 하려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한 일을 체험하였다면 ,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으로 되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위해 계획 하신바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 2-2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단순한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믿음은 내가 무엇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간 편에서 알 수도 없고 경험 할 수도 없는 영역에 있는 일 들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며 편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초월 해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일이다. 이는 그분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지식 또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믿음과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는 하나님이 계시음을 인하여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도 오동함이 없게 된다. (로만그립, 두란노) 스스로 사랑이신 그분이 신적 자아의 본성을 인격적 자아인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존재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 시느니라” (요4:23)라고 하셨다. 시편148편을 보면 천사들을 포함하여 태양과 별들 바다의 괴물들, 층에 이르기 까지 온갖 동물들, 심지어 눈과 바람과 불과 우박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 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유일하게 찾아 나서는 대상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사랑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1:6)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동적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지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지만 당신이 과연 창조된 목적을 믿고 이루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예배는 선택이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경배를 드리는 것 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시29:2)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면 알수록 믿음과 예배는 더 깊어 질 것이고 “진리로 저들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 니이다.” (요17:17)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삼상16:7)고 하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곳 건전한 당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 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 니라 (예레17:5-8)

위의 구절에서는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다. 그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 육체로 자기의 병기로 삼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 둘 간에 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도덕성에 있는 차이가 아니라 믿는 바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에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는 없 이 자신을 감동시키고 자극하고 진동하게 만드는 공허한 감정주의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마술적인 일이 발생 할 것만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모인 것을 믿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 가운데 얼마나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토니 에반스, 디모데)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지만 이는 자기 충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장님이 된 인간 자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너 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적 수준과 노력으로 그 간격이 메워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환상이 고대 희랍 철학을 출발시켰고 오늘날의 인본주의를 탄생 시킨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에게서 출발하고 있으며 인간은 본래 선한데 환경이 나빠서 또는 능력은 있는데 계발되지 않아서 라고 말하며 인간의 자율성, 자아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인간의 이성이나 위엄이 보증 할 수 있는 어떤 매개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의 이성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 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부터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며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보이지 않으시고 알 수도 없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어 즉 절대자인 분이 상대적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태로 오신 사건이 어떻게 이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알려지기 때문에 단순히 받으므로서, 즉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은 내 밖으로부터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고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내가 깨우쳐서, 내가 발견해서가 아니고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 보다는 믿어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믿음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 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즉 믿음이란 내가 무엇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경험 할 수도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이며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

다는 사실이며 그 믿음은 내가,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붙어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조금도 요동 될 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리고 말고 할 존재가 아님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누구 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뿐이다. 인간은 무엇을 해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바로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 2-3.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담고 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자아를 중심으로 삼기는 거짓 영으로 대체하였고 그 거짓 영을 담았으며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타락 이후로 자아의 자기중심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상당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가장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이다. 인간은 생각하고 의지하며 행동한다. 우리가 자존적인 존재라는 말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노만 그럽, 두란노)

우리는 우리를 돕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인간은 원래 하나이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생명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 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골3:3-4)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기를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영을 담아내고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사단 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다. 피조 된 영이 하나님을 삼기기로 예정된 자유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속은 결정을 하였고 정 반대의 길, 방향으로 가능성이 열렸으며 그리하여 드리는 역할 대신에 자족을 추구하는 자아에 묶여 자기중심적 자아가 되어진 것이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존적인 존재라는 믿음은 상식이 되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이 세상의 상식이다. 이는 그런 거짓말을 믿게 하는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고 인간은 언제나 그를 지배하는 영을 담고 다닌다.

인간의 생명의 본체는 “영” 이다. 인간의 영은 자기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유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는 자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지 못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롬6:16)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종의 위치에만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종이나, 주인이나의 물음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나를 물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 신이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후4:4), “ 지금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라” (엡2:1-3)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아직까지 생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다.(최선근, 요한복음 주해) 그러나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전 하고 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와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와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탐구하고 실험해서 그 분께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 지를 체험해 간다.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기고, 느끼고, 대화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실존을 자각하고 새로 나온 본인을 인식하는 과정을 요한은 생명이라고 하며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씨이다(약 1:18, 뵤전 1:23, 고후 5:16~17). 이 씨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는 전혀 새로운 인격체로 잉태시키는 생명이 된다. 성경에서 말씀"의 현재적 실체를 먼저 " 빛 "이라 한 것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같이 인간의 인격의 구성요소인 성질, 본질, 정신적인 이상, 생의 목표, 성격, 감각, 사고의 세계, 가치관 등을 본질상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창조능력을 가졌다는 현재를 빛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특히 인간의 심령의 세계에 참된 의미에서 생명,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상태, 하나님의 뜻도, 의지도, 목표도 없는 반대의 세력에 처한 상태를 말하며 두려워하는 영, 속박의 영, 약한영, 이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인간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데, 이 생명체가 영의 생명이고, 이 영의 생명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의지도 모르고, 역사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여하튼 영적 세계와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둠을 깨뜨려 다시 깨닫게 한다는 데서 빛으로 사람의 심령 안에 실재한다. 그러므로 빛이라고 함은 먼저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하나님적인 신령한 지식, 뜻, 계획 등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를 물리치고 깨닫게 한다는 뜻에서 계시의 성격 빛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영의 생명체를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믿음과, 교제와, 사랑의 일치와 깨닫게 하는 계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빛이 없고, 이전 상태 그대로 어둠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며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가 아니라 그의 진노 가운데, 그의 자비 가운데가 아니라 그의 심판 가운데 처 하여 있는 것이다. 교사 당신은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는 가 살펴보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 2-4. 인격적인 교제

히브리 적 사유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에서 신앙이 시작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고백론 적 질문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동시에 사랑의 증표이다. 타락 후 에도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구원으로 새 창조를 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나와 새로운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언제나 내 아버지로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그 분의 생명으로 전혀 새롭게 탄생한(고후5:17) 그 분의 자녀가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

영생에 대해 깊은 배려와 함께 사랑을 가지신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여 진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인간은 이미 인류의 종말까지 그 미래의 일들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맞이하는 것이다.

요한은 생명의 현존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의 인격적인 교체라고 한다.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탄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요 17:3) 영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체하여 생생하게 하는 것, 곧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받아 체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며, 또 다시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실재하는 모습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현재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한다.(요1서 1:7) 이 교체는 빛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자각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상호 신뢰와 전적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면 우리 내면의 영적 활동에 영향을 받아 총명하게 되며, 정신적 세계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약속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 하지 아니한다(요1서 3:6).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없어지고, 어둡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정신세계는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게 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생명 안에서는 결코 죄짓지도 않고 죄도 없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즉 새로운 인격체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양심이 괴로워하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기준대로, 양심의 책임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순을 인식하는 인간의 고통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선택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 윤리적인 자각, 그것이 아무리 의롭고 위대하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나는 조금 나은 인간은 아니겠는 가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의로움조차도 결코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알아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걸었던 희미한 희망마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선택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선한 자각에서 오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적 사랑은 그것보다 더 커서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심적인 양심의 고발과 죄책감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법, 감로수를 받아먹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죄와 불의에서도 자유하다(롬 8:1~17, 갈 5:1, 13). 남은 것은 사랑을 따라 자기 환경과 분량만큼 덕을 세우며 사랑의 열매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갈5:22)

하나님과 사귄 결과의 결과는 생명의 지속이고, 이 생명의 지속의 결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스스로 사랑이신 그분이 신적 자아의 본성을 인격적 자아인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때 존재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환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랑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육적 자아이다. 이 세상을 쫓아서 온 정욕, 자기 애착이다. 영은 하나님의 신성인 말씀이 지상의 인간 안에 들어와 형성된 구체적인 인격체이다. 하나님의 것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성령의 신비로 인해 지금은 택하신 자들의 심령의 구조 속에서 각 성도의 인격으로 화하여 그 성도의 생명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체로 변형될 때까지 주와 따로 거하며,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성화되어가고 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신적 생명체, 영생하는 속사람(고후 4:16), 썩지 아니

하는 전적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전혀 다른 것에 반응하며, 기뻐한다. 이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이므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살아가신 삶과 저가 행한 생활을 그대로 따라서 산다. 인간이 범죄 하기 전부터 아니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일과 우리에게 관한 그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으며 단번에 행하신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되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교체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또 겸손 해지려면 실제 우리의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3:12-13)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설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는 도다.” (갈5:16-17)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살면서 단지 그리스도만을 위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 살아간다. 양심의 빛이 밝게 빛나므로 자기주변에 구석구석 비추고 사랑과 인내, 겸손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과 교체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사귀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높은 단계의 영안이 열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얻으며 항상 높은 지혜를 가지고 산다. 인간의 외면적인 감각이나 본능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으며 언어 생활도 영혼의 거룩함이 비취어져 맑고 투명하다. 생활은 자연 높은 선을 추구하게 되며 행동에 거짓이 없고 순결하다. 생활은 단순한 생활을 하며 겸손 그 자체가 가장 큰 지혜인 줄을 알아서 어느 것을 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가난해 질뿐이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연약한 인간의 성질을 체험하고 유혹받고 시험받아 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로써 사랑의 의무를 비로소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그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완성은 일체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적 품성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한다. 완성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에 일치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인격을 지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같은 생명체로써 하나님의 속성, 뜻, 목적에 전적으로 응하여 살게 지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대상으로 한다. 죄의 결과, 저주 아래에서 이것을 회복하여 인격이 지향하는 최상의 발전 상태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현현된 아가페의 사랑을 목표로 한다(빌 2:5~11). 그는 근본 하나님이나 자기를 비어 형체를 바꾸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순종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자세가 곧 예수께서 가지신 완전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성의 대상이 된다. 모든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비추임을 받고(고후 4:4, 6), 사모하며, 그 완전을 지향한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 안에 그 분이 정한 시기와 때를 따라 충만한 상태로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완전이란 일차적으로 죄, 죄악의 경향성에 대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의로울 수 있는 면에서 완전이고, 이차적으로는 모든 사람 대하여 전인격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을 말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목적 상, 기능상의 절대 완전하시다. 그러나 지음 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완전은 본질적으로 기능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상대 적 완전으로 단지 적용할 때 목적상에서만 완전하며 목적상의 완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목적하신 것에 자기의 의지를 맞추어 따라가고 자 하는 애씀과 수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자 애쓰는 수고와 과정 속에서 비록 연약함 때문에 기능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실수하며, 모순 되어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의 문제이다. 결코 행위에 있어서 완전이 아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인간이 소유한 생명의 본능은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생명의 원형인 완전성이 어찌나 성스러운지 그 완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과정자체를 사는 삶 을 순종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을 목적하고 그 과정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인간의 생명은 여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완전을 목적하고, 그 과정을 가지며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된 사랑, 이 사랑과 순종을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영적, 정신적 심리현상, 또는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구절이 마태 5장의 8복 선언이시다.

복 있는 자이다! (복 있을찌어다) 그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의 권세)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모두가 목적상의 과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삶이 행복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을 목표로 과정을 가지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목표를 과정으로 이미 그는 완전하며, 동시에 행복한 자이다.

성도의 성장의 정도는 항상 사랑의 정도와 일치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감정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그 사람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돕는다.

감정적인 사랑 - 영적 만족을 체득하고, 열망하며, 동경하고, 영적 열성을 일으켜서 탁월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예민하게 느끼게 교제의 생생함을 돕는다.

실천적인 사랑 - 목표를 정해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케 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변함없는 순종심을 일으킨다.

기독인의 완전은 이 두 가지 사랑의 실천방법을 교차하면서 성장한다. 사랑은 먼저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후에 실천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사랑은 먼저 자기 가슴속에 열정으로 가득 차야 실행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행하신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순간적인 감정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변화하기 쉬운 것이고, 한때는 좋다가 싫고, 잠잠하다가 괴로워하고, 경건하다가도 속된 성질을 부리고, 신중하다가도 경솔해지는 것이다. 참 생명의 사람은 이 감정의 차원에서 자기의 의지의 집중력을 길러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안목을 기른다. 의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면 희미하고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고 만다. 의지의 보는 눈이 순결하여 이중성이 없어야 온갖 파란곡절을 이겨 나간다. 그러므로 의지의 안목이 순결하고 단순하도록 해서, 그 의지가 예수님에게 응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실천하는 데에 무엇보다 먼저는 각각 사람이 자기 믿음의 정도와 받은 분량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분량이 넘치는 실천은 오히려 영적 생명의 성장을 방해한다.

감각적인 사랑이든 실천적인 사랑이든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이 자발적인 의지로 강행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의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 진행속도가 달라진다. 자발적인 의지가 첨가되면 된 만큼 그 당시에는 매우 탁월하고, 그 사랑의 강도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의지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성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무지함, 불완전한 감정의 개입, 죄악의 모순성도 어느 정도 함께 붙어서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의 성화 완성을 방해하고, 사랑의 질도 점점 유지해지고, 사랑의 관계도 불완전하게 된다. 그래도 자발적인 의지가 거두어지지 않고 계속 쉬여서 나가면 급기야는 마귀의 미혹과 함정에 걸려들고 만다. 결국에 영적 성장은 매우 더디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시는 대로, 계시해주시는 정도에 단지 순응하여 자기의 감정도 의지도 쉬이지 않은 채 수동적인 참여로 수행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에만 집중하여 실천을 진행한다. 그것은 본성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수행하는 나 자신은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역지가 없다. 분수에 넘치는 것도 없다. 자신의 수행능력의 의지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알맞게 맞춘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은 실천에 대한 책임도, 실천의 결과인 업적에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사랑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화하려는 데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헌신하려는 사랑보다, 주고받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동화하려는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자발적인 의지의 단계에서 수동적인 사랑의 단계를 수행할 만큼 그 영혼이 성장하려면 먼저 자기 죄로 인한 연약과 무던히도 싸우는 것을 견디어야 하며, 죄의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더 강한 조명을 받으며,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의 위력에 더욱 매달려야 한다. 죄가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를 더 강하게 붙들어서 먼저 자신의 죄와 연약으로 인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죄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를 양심의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인간적 본성의 의지는 서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죄와 정욕도 오래 전에 못 박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았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깨닫고(갈 5:24, 롬 6:4, 6), 갈라디아서 5:13에서 처럼 이 자유의 기회를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은 인간인 자기의 의지에 지배되지 않고 점차 생명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목표를 가지고 완성해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이제는 내가 이 생명 안에서 살게 된 새로운 나를 인식하며 산다.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을 밀어내고, 새로운 내가 이전의 나를 이기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신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전의 생명이 죽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

## 2-5. 생명은 무엇을 목표로 성장하는가?

인간의 생명의 본체는 “영”이다.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세계를 보면 “영”이 없이도 육(물질)과 혼(본능적인 인식)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계에 존재할 때는 영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육과 정신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동, 식물처럼 감각적인 인식과 정신적인 인식, 본능적인 것과 본성의 작용과 함께 그 위에 영적인 인식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생명의 본체라고 함은 좁은 의미에서 영적 인식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정신적, 감각적 인식, 이 세 부분이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를 이루어 이 생명을 구성하게 된다. 영적 기능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계시를 인식하고, 정신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와 원리를 통찰하며, 특히 자아를 인식한다. 감각은 육신의 본능과 애정에 대한 열정을 인식하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기쁘고 슬픈 것 등을 감지한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생명체로써 서로 보완하고 지배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여러 구조와 기능으로 채워져 있는 생명체는 영적 본능에 집중하여 명령을 받고 때론 암시적으로, 때론 영감 적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발돋움하면서 향상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생명체 자체를 “인격”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인간에게서,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영만이 독립된 존재로 실존하지 못하며,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동시에 일체성을 가지고 같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실체인 인간의 생명체는 육신만도, 정신만도, 영만도 아니고, 이러한 세 기능의 서로 다른 역할이 하나의 체제에, 하나의 뜻 요구, 목적에 반응하며, 행위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생명존속을 위해 서로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관계를 가지는 복합체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주체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요 16:63)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물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의 주체가 영이라면 존재의 주체도, 인격의 주체도 영이다.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이 우주와 역사의 시간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며, 왜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생명으로써 삶을 지속하는가? 생명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

으며, 어떤 실존을 목표로 자기 형상을 완성해 가느냐? 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교사 자기의 삶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로서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6. 인격의 완성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인격, 성품이)  
온전하게 되었은즉...(히 5:9), 이미 얻었다함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예  
수께 잡힌바 된 그것 을 잡으려고...(빌 3:14~16)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  
며 병을...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눅 13:32)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단어가 있다면 “그의 피, 흠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다. 이 피는 기독인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죽임을 당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길 원 할 때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갖게 되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믿는 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피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다. 피는 생명이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부활 하심이 믿은 후 그 분이 현재 인격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에 현장에서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해는 하나의 열쇠 일뿐 또한 열쇠는 믿음이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자연적 이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께 우리 존재 전체를 완전히 내 맡기는 내적 결단과 외적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되면 초자연적 계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자연적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고 내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갈1:15-16) 이렇게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게되면 진리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노만그랩, 두란노)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단회 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이 오신 것으로 완성된 일회적 사건이다. 우리가 한번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완전한 구원이신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 시키신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죄 용서함 받은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 조금 더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됨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까지는 할 줄 알게 된다. 위에서 언급 했드시 인간은 원래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존재이며 내용이 아니라 그릇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존재를 담고 살도록 지음 받아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존재의 본질이 다만 드러나는 것뿐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다른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 2-7. 두 가지 다른 본질

아직 구원 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우리는 “본질 상 진노의 자식 이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악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제는 은혜로 거듭 나서 거룩함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죄나 거룩이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나 거룩은 인격으로서의 죄인의 존재, 인격으로서의 거룩의 존재가 있으며 따라서 죄나 거룩은 인격들에 속한 것이지 나의 속성이라든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보다 크심이라 (요일4:4) 죄란 행위의 결과로서 죄인이기 이전에 죄인인 우리이며, 죄인 된 우리이기 이전에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단 자신이다. 그와 반대로 거룩이란 우리행위의 결과로서의 우리의 어떤 경건한 모습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들이며,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다. 선 한 분은 오직 한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니라” 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뿐 이시며 “처음이요 나중 이니라” 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그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이 되시며 바로 그 “생명, 빛, 진리, 능력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조건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는 데에 자기 자신이 전혀 방해가 안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반대로 온갖 경건치 못함과 거짓과 어두움과 죽음의 증거들은 내가 아니라 이세상의 신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후4:4)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일3:8)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짓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 죄의 샅도 담당시킨다. 죄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형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달라진 것이다. 변화란 내 안에—거하시며 나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예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종인 것이다.

로마서 6장은 자연적인 사람, 7장은 육적인 새 사람, 8장은 고전2:14절과 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엡2:2-3) 자연적인 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담고 있는 인간이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 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벧후1:4) 성경은 불신자를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신자는 자연스런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죄 짓고 멸망해가는 인간상태인 것이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잠시 동안 겪는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다.

육은 타락한 이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성을 말하는 용어로 성령에 의해 주관되지 않는 육은 즉시 죄 된 욕망들이 거하는 장소가 된다. (롬7:18-21) 새 사람으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을 잘 못 다루는 생활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절대로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었으며 독립적일 수도 없다. 단지 거듭나지 못했던 시절에 사단에게 속아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처럼 느꼈을 뿐이다.

### 3. 인간 안에 옛 생명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그대로 심으로 롬1:19,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의에게 있었으나 21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28절에 두기를 싫어하였던 것 드 결과 21가지 죄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틀리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한다.

#### 3-1. 죄의 본질

.불의- 죄의 충칭, 죄의 본질을 충칭

.추악- 악이 썩는다. 남을 해치는 것을 악으로 삼으려는 죄성

.탐욕-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라나님을 물질로 대치했기 때문에 생긴 이기적인 욕심이다.

.악의- 추악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인간의 내적 성질로서 악이 마음의 중심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악의 본래 모습이다.

#### 3-3. 질투의 죄

.시기- 정신적인 살인, 남이 잘 되는 것, 성공을 싫어하는 마음(잠14:30), 시기는 자기의 뼈를 썩게 한다.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것이다.

.살인- 시기와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분쟁- 화목을 해 하는 죄

.사기- 미끼를 던져서 남을 속이는 것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흉계가 깊이 숨어 있다.

.악독- 악한 성질, 외적으로는 달콤하지만 내적으로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흉계가 깊이 숨어있다.

#### 3-4. 참소의 죄

.수근수근 하는 일- 남이 듣지 않는데서 악평 하는 것, 남의 허물은 충고 해 주어야 한다. 잠18:21,21:23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란의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술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비방- 수근 수근이 보이지 않는데서 하는 것이라면 비방은 공공연히 남을 해치기 위해 악평하는 것이다.

#### 3-5. 오만해서 짓는 죄

.하나님의 미워 하는자-잠18:5 마음이 교만한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약4:6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신다.

- .능욕 하는 자- 교만의 바탕위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
- .교만 한 자- 남을 멸시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
- .자랑 하는 자- 교만 한 태도가 그의 말투로 나타 날 때
- .악을 도모 하는 자- 악을 꾸미는 것

### 3-6. 불성실해서 짓는 죄

-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배신하는 죄
- .우매한 자- 이해력이 부족 하여 무지 하고 사리 분별이 없어 남의 사정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죄성을 말한다.(막7:18)
- .배약 하는 자- 신의가 없고 약속을 어기는 죄.
- .무정 한자-애정이 엷는 것,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피 하는 것, 사1:2-3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기르듯이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 우매한 결과 감사함도 없다.

### 3-7. 정욕: 애정과 욕망의 합성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서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생명체로서의 본능인 애정과 욕망을 주셨다. 선도 악도 아닌 생명체로서의 본능이다. 그러나 이 본능이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최악 된 성품에 지배되어서 합쳐 질 때 죄의 꽃과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공통체를 파괴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둔화 시키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의 악이 되는 것이다. 원래 정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창조된 것인데 타락 이후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골3:5,약3:15,벧후1:4,요일2:15)

- ①교만 - 자랑, 남 무시, 자기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 ②탐욕 - 자기 이기심, 고집과 독선, 자기 의견대로 주장.
- ③음란 - 쾌락, 호색, 음욕.
- ④나태 - 게으름, 무정, 배신, 성실치 못하고, 약속 어기고, 힘든 일 피하는 것.
- ⑤포악 - 신경질, 혈기, 복수심, 거친 말씨.
- ⑥질투 - 비교, 실망, 경쟁,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에 신경 쓰는 것.
- ⑦거짓 - 눈가림, 수군수군, 허위, 중상, 술수, 지나친 과장.

### 3-8. 4 종류의 죄성

- ① 무 지 / 책임이 가볍고(눅 12:48) 단순해서 하나님께 쉽게 돌아온다.
- ② 비 겁 / 의지력이 약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자기 결점을 슬퍼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약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니 결심이 강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 ③ 무관심 / 죄를 포기하려 않고, 거룩한 권면을 무시한다. 마음이 강박해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는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노동, 봉사명령을

주어서 심한 고통을 겪게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 주어야 한다.

- ④ 강박 / 대책이 없다. 기도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사람도 때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착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 3-9. 과실

작은 거짓말, 유치한 정서를 즐김, 고의가 없는 탈선, 실수, 주의력 부족과 약한 정신력 때문에 나온다. 이런 경우에 너무 크게 실망해서 자기감정을 확대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사랑의 일이 식고, 성화가 둔화되고, 고상한 결심도, 높은 이상도, 비상한 깨달음도 저하되지만, 계속 투쟁하고 부단히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인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적절한 그릇으로 결국 성장한다.

### 3-10 기질과 성격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타고난 기질과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결점이 된다.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변화하는 성격도 성화의 과정에서 방해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파괴하러 오신 것 아니고, 완성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잘 다스려 가면 성령의 도움으로 기질과 성격의 내용이 점차 변화하여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해서 이웃을 위해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다.

### 3-11.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안에 있는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속명적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마귀는 우리의 본능, 욕심, 죄성을 통해서 유혹하지만, 의지가 잘 훈련되어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약 1:14, 벰전 5:8).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자기의 자녀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지만, 결국 극복하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전 10:13). 이 마귀의 시련을 이용해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성도의 영적 성장을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한다.

### 3-12. 갈 5:19-21의 16가지 죄목으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의 성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등과 같은 종교적인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등과 같이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죄, 술 취함과 방탕,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

이외에도 딤후 1:19-10에 14개의 죄목, 딤후 3:2-5에 19개의 비슷한 죄목이 언급되어 있다.

## 4. 위의 죄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들



#### 4-1. 외적감각

인간의 본능은 감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에 무조건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짙다(고전 9:27,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친다고 했다). 되도록 내면의식을 탐구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모든 위대한 것은 내면의식에서 창의되어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자기 분량에 과도하게 감각을 매어두면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건조하고 메말라서 심리적으로 정서가 크게 불안해진다. 감각에 의해서 눈을 뜨는 육신의 쾌락에 최후의 안식을 두는 일은 피해야 한다. 감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영적인 목적이 앞서기만 한다면 적당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역할을 한다. 감각도 인격에 붙여쓰기만 한다면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 더 없는 좋은 도구가 된다.

#### 4-2. 상상의 정화

상상은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준다. 말씀의 중심이 없는 상상력, 이성 의 지배를 벗어난 상상은 사람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상상력 자체는 위험이 없지만 분노에 부딪히거나, 미워하거나, 감정의 충동에 부딪히면 상상력은 너무 크게 과장시켜 사건을 보게 함으로 소망을 빼앗아가고 용기를 잃게 한다. 너무 이상한 것을 많이 보거나, 유치한 내용이 담긴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건전한 대화를 하고, 좋은 영적 독서를 하고, 건전한 노동을 하는 것이 좋다.

#### 4-3. 평가·판단의 정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영적 성장에 큰 위기를 만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판단한다고 하는 자가 원재료가 잘못된 것 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우리의 지성이 정확한 지식에 근거할 수 있도록 성경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확하고 바른 해석의 기초 위에 우리의 지적 판단을 길러두어야 한다.

#### 4-4. 기억의 정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성화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기억하며 산다. 기억이 좋은 면도 많지만, 기억은 나쁜 일들도 우리의 지적정보 회로망에 저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이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처리해야 할 것은 자신(남)의 죄에 대한 기억을 정화시켜야 한다. 지난날의 죄와 상처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이미 용서받고 용서했으면서도 반갑지 않게 떠올라서 심정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복음의 위력은 대단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 못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렇지 않다. 남의 잘못도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의 죄와 허물도 자꾸 꼬집어내 싸우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어디 사람이 그러는 것인가. 나나 남이나 다 죄(마귀 역사, 원죄의 죄성)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을.

과거의 기억에서 뛰쳐나와서 미래를 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인생이 더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을 역사 속의 많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안다. 설혹 자기에게 큰 죄와 과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으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의 행복에 들어갈 것을 바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남은 인생을 누려라!

#### 4-5. 지성의 정화

인간의 인격 구조면에서 지성은 감성보다 더 우월하다. 감성적인 지식은 뚜렷하고 직관적이며 부드럽고 위로 적이지만, 감성의 단점은 단일 대상만을 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너무 쉽게 빠져들고, 관념과 개념상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로 접근하지 못한다.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간다. 그러나 지성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개념과 사고의 유추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대상을 동시에 취해서 그 여러 개인에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집합세계, 통일성)를 발견해 낸다. 이것은 판단력, 추리력, 종합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통찰력, 두개 이상에 대하여 관련성을 깨닫는 이해력(감성은 두 개 이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불가능하다)등, 다양한 사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지성의 위대함은 성경을 연구하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통찰을 얻게 한다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지성의 고유한 역할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다 터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성의 세계를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해결하지는 못한다. 적어도 신앙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 지성이 미쳐 쫓아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지성은 의식보다 아래에 있다. 의식보다 더 높은 것이 영성적 자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은 영적 자아에 대한 깨달음(계시적인 인식)보다도 아래에 있다. 영성적 자아보다 더 높은 것이 순종이요, 사랑이다. 순종이나 사랑의 세계는 지식으로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식은 의식의 세계를 감상하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한다. 지식은 의식뿐 아니라 영적 계시, 순종, 사랑의 차원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식(지성만으로 정치, 경제의 힘을 소유한 권세가)이 높은 사람, 영적 계시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존중하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무시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다.

지성은 현재의 일만 가늠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이것이 지성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지성은 이러한 더 높은 세계들의 영적 권세 아래에서 자기의 역할만 다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더 높은 영적 세계가 다가오면 존중하고 순응할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곧 지성이 정화되는 것이다.

#### 4-6. 정욕의 정화

정욕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한 목적에 사용되면 위대한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악한 의지에 사용되면 심각한 파괴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정욕은 애정과 욕망으로 되어있는데, 마귀의 유혹이나 죄악성과 결탁하지만 앓는다면 크게 위험할 것은 없다.

애정 - 남녀의 애정, 혈육의 애정, 친구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욕망 -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수면욕, 지식욕

이 자체는 전혀 죄성도, 악도 아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 자유의지가 애정이나 욕망 중에 어느 하나와 결탁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어 치우치는 순간 죄악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정욕활동은 극 탈하게 제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관계를 끊고 신앙을 거부하는 원죄 외에 자범죄는 공동체 전체의 덕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시 자기가 처한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 문화, 보편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관리가 안된 감정적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우,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조심한다면 비교적 정상적인 은혜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잘 통제되고 정화되는 부분이다.

#### 4-7. 의지의 정화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능이다. 의지는 지성과 감성에 서부터 오는 정보에 의해서 작용한다. 의지가 움직이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대상(목표)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의지는 지성과 감성의 도움을 받아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의지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지 선택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지성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다.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최종적인 힘은 무엇인가?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 적이든, 육욕적이든, 자기의 기쁨의 원리에 따라서 동의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도, 감성도, 심지어 의지까지도, 원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했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도, 수행하지도 못한다. 지성이 판단해서 제공해주는 정보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의지 자체 역시 자기 중심적이고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그리스도의 의지(생명)에 의해서 정복되고 다시 탄생되어야 할 필연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정복되어야 보다 하급 기능인 지성, 감성(정욕, 본능)들을 잘 지휘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맞서서 참다운 지식과 사랑에 반응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순종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순종의 신앙은 가장 복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인간의 의지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동안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자기 방식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 선하고 옳다하는 최선을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성화하려고 들어오지 않는다(계 3:20,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으리라). (조던 오먼, 영성신학)

#### 5. 결론

하나님 자신은 거룩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거룩 자체가 아니고, 그 거룩을 좇아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상의 거룩만 가질 뿐이다. 이 땅에서 성화를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만큼 완전히 이룬 자는 없다. 하나님은 신성으로써의 거룩이며, 본질상으로, 기능상으로, 성격상으로 거룩이지만, 우리의 는 하나님의 거룩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점진하고 과

정을 걸어가는 목적상에서의 기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목표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을 알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향하면서 과정상의 기록을 가진다. 이것이 성도의 도덕적인 성결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죄와 불완전한 인격성에서 오는 양심의 고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변절치 않고 계속해서 소망하고 믿어낸다. 그러므로 성도의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데서 자기 죄의 참담함을 건디어내는 깨끗함이다. 성도의 그러한 수고는 물론 위로부터 주어지지만 참으로 숭고하다. 이때 성령도 그와 함께 탄식하며 인간의 연약을 도와 성화의 위치를 지켜내도록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한다(요1서 2:1, 롬 8:26~30). 로마서의 말씀대로 결국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정화하는 사역이다. 새 생명의 씨가 점점 옛사람의 성향을 몰아내며 죄악에 지배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차차 제거함으로 새 생명의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에 완전히 일치하여 완성된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육체의 죄에 갇혀있는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성경(롬 12:3~, 엡 4:11~)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였다고 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한 개인에게 완전히 이루시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완성을 한 개인에게 이루려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은 영웅주의, 카리스마주의이다. 궁극적인 완성을 개인에게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두고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예수의 한 몸을 찾으려는 것은 바람직한 성화이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화의 마지막 자리이다. 완전한 성화는 개인에게 없다. 각자의 인간적인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 모순된 부분을 짐져 주고 덮어주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완전한 성화가 있다. 완전한 성화를 개인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 완전한 성화는 예수님에게 있고, 그 성화를 공동체 안에서 보려고 하라. 개인의 성화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완전함을 이루려고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그 사람의 겸손한 인격이요, 순종하는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은 다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러한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인 공동체 안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화하여 완전한 덕과 사랑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그리스도의 생명, 성품)이 인간의 인격구조 안에 가득히 채워진 상태, 우리의 인격이 그 분의 성품에 온전히 스며들어 서로 일치하는 순간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완전한 생명인 이 충만이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생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과 생활관을 통해 다 나타났던 것이다. 이 인격은 성도 안에서 체험되고 나타나는데, 이 인격이 체험되면 신비한 정서적 체험으로 그 분의 입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며 이 인격의 경험으로 그 분의 입장이 되면 사람의 성격도 내용부터 달라진다.

「따뜻하지만 냉정하기도 하고, 겸손하지만 분별력이 있고, 순수하지만 담대해서 교만케 보이기도 한다. 사랑이 넘치지만 깊어서 이해 안 된다(엡 3:17~19)」

그 후에도 그 사람의 지성, 감성은 점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예수님의 심정 깊은 곳에서 사물과 사건을 보게 되고, 이 충만은 점차 성장하여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영, 정신, 감각(지성, 감성), 인격전체에 성숙한 인식 즉 예수님의 입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적 지혜와, 지성적 통찰력과, 감성적 심미성이 고루 완성되게 하며, 영적인식은 지성과 의지를, 지성과 의지는 감성을 지배해서 한 인격체로써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활동은 자신의 생명 속에 이미 저장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여 움직이려고 하며, 영혼 속에 뿌리내린 신성의 본질로 귀속하려는 생명 본능의 도움을 받아 타락 이전의 거룩한 형상을 향해 더 좋은 성질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은 역사 속에 한 인격의 개체로써 모든 분야에 가능한 한 접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비유로 봉사하며, 영적 인식, 정신적, 감성적 변화된 인식능력을 동원하여 고차원적인 사랑의 윤리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기가 처한 각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봉사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교사들이 사이버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기를 바라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적 하신대로 활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도서목록

- .게르할더스 보스, 성경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 .그레엄 골즈워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성서유니온 선교회
- .노만 그럽,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란노
- .루이스 벨콕, 기독교 신학개론, 성광 문화사
- .론쎬니, 권위와 복종, 네비게이토 출판사
- .마틴 로이드 존스, 십자가, 두란노
- .제리 브릿지즈, 하나님을 의뢰 함, 네비게이토 출판사

- .조던오먼,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 .조지 헛 필드, 와서 최고의 신랑을 보라, 지평 서원
- .짐 화이트, 그리스도를 닮아감, 네비게이토 출판사
- .팰머 로벗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기독교문서선교회
- . ,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심
- .워치만 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생명의말씀사
- .신국원, 포스트 모더니즘, IVP
-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죠이선교회 출판부
-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과 사랑. 바울 서신
- .하문호, 기초 교의 신학, 한국 로고스 연구회
- 하진승, 열심, 네비게이토 출판사
- . ,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동기. 네비게이토 출판사
- .홍관옥, 예수님의 약속, 크레도